

난개발 방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마련

도, 이달 용역 착수... “환경보전·계획적 개발 유도”
계획허가제·사전협상제·고도관리기법 등 적용 검토

제주도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이 증가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및 난개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환경보전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정과 공존’의 지역 미래가치를 실현하고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주요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에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계획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연구용역을 이달부터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기초조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이미 마련된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부산시 등의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LH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등 관련연구 수행기관을 방문해 추진현황 및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새로운 도시계획기법,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 고도관리기법 등의 새로운 도시계획기법의 적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상사업별로 부문별, 유형별 세부 기준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매뉴얼로 작성·배포해 계획수립 시 적극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되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은 계획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주요 심의기준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침은 관련계획 수립 시 지역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화되고 통일된 기준을 제

시해 일관된 도시계획체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계계획과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를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이다.

도시 내 일정구역에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의 평면계획에서 건축물의 높이, 형태 등 입체계획을 동시에 포함하는 계획으로 주요 개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금악·상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심의 통해 토지경계 수정

제주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악·상명지구 토지경계가 새롭게 결정됐다.

제주시는 금악·상명지구의 지적경계가 지난달 30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미정 판사)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은 한림읍 금악리 1915번지와 상명리 86의 2번지 일대 420필지 60만6383㎡로,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에 상정한 결과 4필지·면적 1329㎡가 늘어난 424필지 60만7712㎡로 경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종 지구 내 128필지는 면적 증·감이 발생하게 됐다.

이현숙기자 hslee@ihalla.com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합치를 새롭게 측량해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에서는 현재 9개 지구에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2리가 지난달 30일 대전 KT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제5회 전국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소속·체험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제주 3개 마을 ‘행복마을 콘테스트’ 수상

대정읍 무릉2리 은상 차지
금능리 동상·용흥리 입선

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급여·예금 위주 압류 등 강화

제주시는 9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의 목표 체납률은 2.6%이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율은 지난 2016년 2.9%, 2017년 2.7%였다.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체납액 징수 방식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로 압류하던 방식에서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50만원 이상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장 운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한 뒤 미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를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

징수 가능한 실적이 있는 재산은 즉시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관허사업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특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여순 재산세과장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숙기자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로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금능리는 마을 원담축제와 꿈차랑 작은 도서관 운영 등 문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용흥리는 GAP 선도 마을 지정과 마을 가꾸기 활동 등으로 농촌다움을 복원했다는 평을 받았다.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올해 5회째 열렸다.

올해의 경우 소속·체험, 문화·복지, 경관·생태,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등 4개 분야에 걸쳐 3000여개 마을이 신청했으며, 각 시·도 예선을 거쳐 분야별 1개 마을이 본선에 올랐다.

지난해 4회 콘테스트의 경우 제주시가 시·군 분야 동상을 수상하고, 에월읍 상가리가 문화 복지 분야에서 입선한 바 있다.

이현숙·조흥준기자



지난달 3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에서 열린 제2차 JDC 이음일자리 지원사업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JDC 제공

“신종년에 새 희망을” JDC, 이음일자리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직무대행 임춘봉, JDC)는 지난달 31일 JDC 본사에서 ‘제2차 JDC 이음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JDC가 주최하고 제주 YMCA(이사장 신방식), 제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소장 강수영)가 공동주관하는 이 사업은 만 50~70세 이하 신종년의 재능을 활용한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을 위한 JDC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지난 3월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제1차 JDC 이음일자리 지원사업’에 이어서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에는 260명의 신종년이 참여한다.

사업 참여자들은 오피스 매니저, 버스킹 공연단, 푸드 매신저, 움직이는 도서관 사서, 일자리 지원단 5개 사업에 배치돼 활동하게 된다. 특히 오피스 매니저들은 도내 오피스 20여 개를 순회 방문해 환경보전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1차 사업 참여자 대상 203명 대상 설문조사 95.6%의 만족도, 98%가 사업 재참여 의사를 보여 신종년 일자리 창출을 인생 2모작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임춘봉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JDC 이음일자리 사업은 신종년에게 일을 통해 소통하고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찾게 해주고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제주의 환경가치 증진에도 기여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돌문화공원 박물관 대학 제주화산섬 주제로 강연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돌문화공원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에서 2018 박물관 대학 지질강의 프로그램 ‘제주화산섬이 어땠을까’를 운영한다.

이번 9월 박물관 대학은 윤성호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

수를 초청해 수월봉, 송악산의 지질 특징, 서귀포층, 현재까지 파악된 옴름의 연대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사인 윤성호 교수는 한라산, 옴름 등 제주도 화산체 및 백두산 등의 화산 활동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고 돌문화공원에 설치된 제주화산연구소의 일원으로, 프로그램은 제주 화산섬과 지질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태풍 ‘솔릭’ 피해 도로시설물 정비

소규모 피해 90건 복구 완료
도 “나머지는 복구공사 발주”

제주도는 제19호 태풍 ‘솔릭’ 내습에 따른 지방도 17개 노선·572km에 대한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자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 작업을 조기 마무리하고 노후·훼손된 도로시설물 등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 피해 현황은 도로 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 전도 및 파손 등 피해가 총 95건으로 이중 소규모 피해 90건은 자체 도로 정비반(6개반·40명, 장비22대)을 활용해 지난달말까지 복구를 완료했다.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 이정표 등 파손 5건에 대해서는 조속 복구공사를 발주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지방도 등에 설치된 노후 시선유도봉과 평화로와 번영로 중앙 분리대(식수대) 조정수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열리네이터에 대해서는(평화로 17.0km, 번영로 21.0km) 도로표지병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로 곳곳에 설치된 도로 안전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파손상태 및 오염상태 등의 점검을 통해 적기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인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대로그자

제6회 2018제주 NIE대회

2018.9.15(토) 오후1시
제주상공회의소 5F

NIE대회 참가요강

참가안내

제주NIE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상을 바르고 넓게 볼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8 제6회 제주NIE대회'를 개최합니다. 초·중·고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회일정

- 일시:** 2018년 9월 15일(토) 오후 1시
- *대회용지 배부 후에 입장 불가합니다.
- 장소:** 제주상공회의소 5F
- 주관:** 제주NIE학회
-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청방법

- 접수:** 2018년 9월 3일(월) ~ 9월 10일(월)
- 방법:** 제주NIE학회 (Daum - 제주NIE학회)카페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jejunie@hanmail.net) 로 접수
- 대상:** 제주도내 초·중·고등학생
- 수상자 발표:** 2018년 9월 18일 화요일 한라일보 지면.

다음 제주NIE학회카페

- 시상식:** 2018년 11월 3일 11시 (제 10회 생각을 춤추게 하는 NIE 전시회 개막식)
- 시상식 장소:**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

주관_ 제주NIE학회 후원_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의_ 제주NIE학회장 객재정 010-6394-5593 부회장 이현화 010-4369-3011 교육국장 오정심 010-9959-5061